

주식 손실나도 '세금'... 투자상품 포괄 통합과세 필요

도돌이표 韓증시

(下) 세제·지수 바뀌야

증권거래세 '투자심리 저해' 우려
'양도소득세' 처럼 이익만 부과를
韓 지수 산출방식 美 처럼 바뀌야

금융투자업계에선 증시 도약을 위해 자본시장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는 세금, 규제 등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증시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지수 산정 방식을 바꾸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손실난 주식에도 세금을 매기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주식거래 시 손실이 나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발의했다. 또 금융투자상품별 상

(주요국 세제 비교)

국가	증권거래세	주식자본이득세	손익통산	손실이월
한국	○	△	X	X
미국	X	○	○	○
영국	○	○	○	○
일본	X	○	○	○
호주	X	○	○	○
캐나다	X	○	○	○
홍콩	○	X	-	-
싱가포르	○	X	-	-

이한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 "세금부과 방식 바뀌어야..."

주식시장 세금 문제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주장한 문제다. 이미 지난달 3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금융투자업계 대표가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와 소득세 개정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현재 주식으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자본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양도

소득세' 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게 금융투 업계 의견이다.

특히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 중인 대주주의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 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대주주의 기준이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 2021년 이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세제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운영했던 일본은 10여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 양도소득세로 완전히 바꿨다. 스웨덴은 양도차익에만 과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자본의 해외이탈을 경험한 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바 있다.

투자 상품마다 세금을 따로 매기는 것도 한국 시장의 문제다. 일본은 주식·채권·펀드의 소득 간에 포괄적인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미국과 영국은 손익 통산과 더불어 당해 연도 전체 투자금액에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곳에는 과세도 없는 것이다.

한국의 과세체계는 주식·파생상품·펀드·파생결합증권 간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펀드 간 손익통산도 불가능해 베트남 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중국 펀드에서 2000만원 손실을 봐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과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익에만 과세하는 현 체계에서 손실분도 감안한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등의 세제 지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수 산출방식 바뀌어야"

한국의 지수 산출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꾸준하다. 상장된 모든 종목의 시총을 반영하는 현재 지수 산출 방식은 한국 증권시장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에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모든 상장 주식의 시총을 지수화한 것이다.

반면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30개를 표본으로 시장가 격을 평균산출한다. 때문에 다우지수는 미국 증권시장의 동향과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로 사용된다.

지난 2일 금투협에서 열린 '증시 대 전망'에서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는 "G20 국가 중 전 종목에 대상으로 지수를 만드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밖에 없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종목이 40개밖에 안된다"며 "(미국 다우지수 처럼) 한국이 가장 좋은 30~40개 종목으로 지수를 만들었다면 주가가 크게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日 무역 보복에 韓 증시·펀드 모두 약세

주간펀드동향

일본 무역 보복에 한국 증시가 약세를 기록했다. 한 주간 모든 국내주식형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14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7월5일~11일)간 전주 대비 1.33% 하락한 2080.58포인트로 마감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금융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 다만 주중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락폭을 제한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

orld Index)는 전주 대비 0.55% 하락한 2201.14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는 전주 대비 1.01% 하락한 1048.95를 기록했다.

한 주간 국내주식형펀드는 1.52% 내렸다. 중소형주펀드의 하락폭이 가장 가팔랐다. 순자산은 전주보다 8160억원 줄어 들었다.

해외주식형펀드 역시 0.76%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인도(-2.94%), 친디아(-2.02%), 중국(-1.74%) 등이 하락했고, 브라질 펀드가 6.11%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 순자산은 3380억원 감소했다. /손업지 기자

청량리 롯데캐슬 등 전국 4700가구 공급

분양캘린더

7월 셋째주에 전국에서 47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 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공식화되며 '로또 아파트' 청약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분양이 연기됐던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가 분양승인을 받아 견본주택을 오픈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이번주 청약접수는 '구의 자이엘라', '세종하늘채 센트레일' 등이다. 올해 서울 첫 신혼희망타운인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도 본격 청약을 앞두고 있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전국 13곳에서 총 4734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8곳, 계약은 6곳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



서울 양암4구역 재건축아파트인 'e편한세상 백련산' 청약이 오는 17일 시작된다.

은 전국 4곳에서 개관될 예정이다. 오는 17일 GS건설 자회사 자이S&D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구의자이엘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3층~지상 13층, 전용면적 20~73㎡, 총 85가구 규모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아차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자양로, 천호대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증시 부진속 음식료·저PBR·골판지 '주목'

株라쿨라의 종목

대표식품·코오롱글로벌 등 4곳

대표식품 '식물성육류' 관심 고조
코오롱글로벌 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신대양·대양제지 예상실적 저평가

(하반기 기대 섹터 내 투자유망 업체 Top-picks 4선)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현재주가 (원)	PER (2019E)	매출액(십억원, %)		
				2018	2019E	YoY
대표식품	139.3	30,500	7.0	67.6	68.6	+1.5%
코오롱글로벌	238.4	9,460	4.4	858.0	805.0	-6.2%
신대양제지	311.9	77,400	3.3	188.3	176.0	-6.5%
대양제지	107.1	3,990	3.8	71.9	69.0	-4.1%

"올 상반기 국내 증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미·중 무역 갈등등이나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증시의 침체 원인은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14일 "하반기 국내 증시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코스피·코스닥 약보합

최 연구원은 코스피의 경우 연내 대형주의 실적 회복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 하반기 코스피는 약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닥의 경우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나 '신라젠 펙사벡 무용성 논란' 등 쏟아지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악재가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전통 제약바이오 업체인 유한양행의 시가총액이 3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7조5000억원이 넘고, 신라젠도 3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바이오 섹터 옥석가리기로 인해 코스닥 지수의 추가하락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빠져나간 투자자금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우리 증시의 움직임이 수급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른바 '바이오 버블'을 만들었던 자금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

최 연구원은 "5G나 비메모리, 게임주 등 주도 섹터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며 "이를 구성하는 주도주의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음식·저PBR·골판지 '추천'

최 연구원은 올 하반기 국내 증시의 주도 섹터로 부각될 3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주목한 섹터는 음식료 업종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음식료 업종 내에서 최고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표식품을 최선 후보로 꼽았다. 주력 매출 품목인 간장의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며 성장하고 있어 긍정적이란 평가다.

최 연구원은 "아직은 R&D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식물성육류'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며 "대표식품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발효 기술이 식물성육류 생산의 핵심기술로 부각되면서 관심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관심 분야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자산주이다.

최근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쏠리는 가운데, 자사고 폐지 이슈까지 급부상하면서 강남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에 개발 가능한 대형 부동산을 소유한 업체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논리다.

최 연구원이 주목한 업체는 PBR 0.4배 수준의 코오롱글로벌이다.

최 연구원은 "코오롱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을 포함해 장부가 기준 4300억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주변 시세와의 괴리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동산까지 뿐 아니라 실적 모멘텀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가 이어지며 관심이 고조될 것이라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최 연구원이 주목한 섹터는 골판지 업체들이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 대부분 PER 3~4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국내 골판지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신대양제지, 대양제지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특히 중국의 폐지수입 금지나 국내 택배시장 확대, 플라스틱 제로 정책 시행 등으로 골판지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손업지 기자